

◇의상성 심장압전

오상기, 장원채, 나국주, 김상형

전남대병원 흉부외과

배경 및 목적 : 심낭 내 출혈에 의한 급성 심장압전은 매우 응급을 요하는 질환으로 교통사고에 의한 흉부외상의 증가와 더불어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사료된다

방법 : 의상에 의한 심장압전으로 수술을 시행한 17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발생 원인은둔상에 의한 경우가 12례, 관통상이 5례였으며, 내원 시 혈압 저하 소견을 보인 례가 12례, 의식 변화가 있었던 례가 5례였다. 진단은 16례에서 흉부 전산화단층 촬영으로 진단하였고 출혈량이 미미하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1례에서는 심초음파로 진단하였다.

결과 : 모든 례에서 진단 즉시 응급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상 후 수술까지의 시간은 평균 8.49 ± 4.91 시간이었다. 16례에서 정중 흉골 절개술을 1례에서 좌전방 개흉술을 실시하였고, 손상 부위는 우심실이 6례로 가장 많았고, 손상 부위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도 2례있었다. 수술은 14례에서 손상 부위에 대해 단순 봉합술을 실시하였고, 이중 2례에서 인공심폐기를 가동하였다. 또한 1례에서는 손상된 좌전하행지에 대해 단단문합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사망은 1례였으며 원인은 좌심방과 폐정맥을 포함한 광범위한 열상에 의한 출혈이었다.

결론 : 급성 심장압전의 진단은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으로 용이하게 진단할 수 있으나 정확한 손상 부위를 확인하기는 미흡하고, 심장의 손상은 부위나 손상의 정도에 따라 인공심폐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손상 부위를 신속히 진단할 수 있는 매체가 준비된 수술을 가능하게 하리라 생각된다.

책임저자:나국주(전남대학교) 발표자:오상기(전남대병원)